대학상권 붕괴위기,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?(생각중)

(이미지 추가..?)

문제설정 배경

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수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학상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



또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엔 과연 대학상권은 활기를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음



<대학상권 위험도 증가>

지역설정 및 대학상권 기준

지역설정

서울시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중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 상위 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보다많은 대학상권을 EDA해보기 위해 동작구를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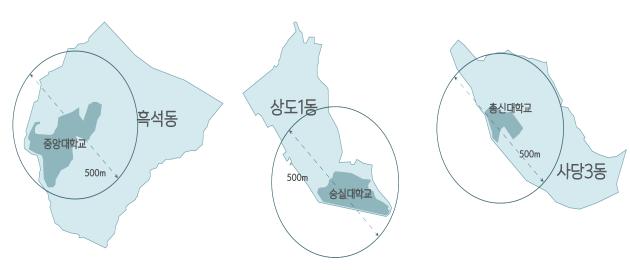


<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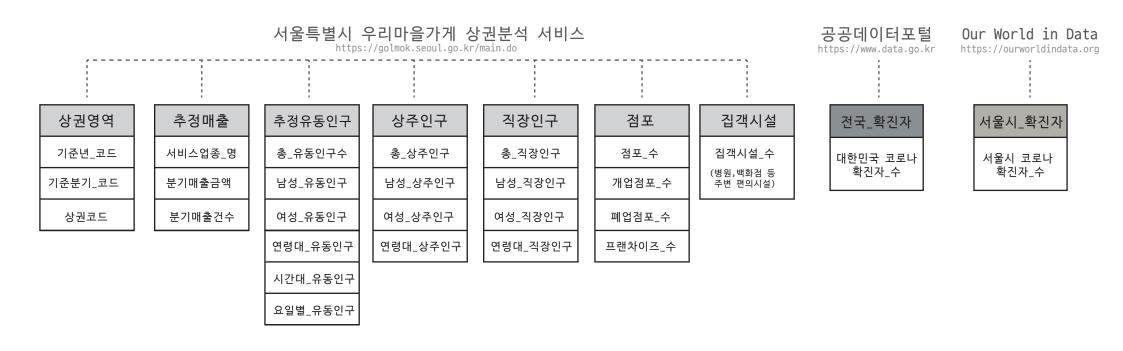


대학상권 기준

- 1) 대학교가 소속되어있는 행정동
- 2) 정문 기준 반경 500m내외로 대학상권 범위설정 *기존 많은 연구에서 200m~1,000m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되었지만 대학상권이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이라는 특징과 보행상권에 초점을 두어 반경 500m로 지정
- 3) 불필요한 상권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점포수가 10개 이하인 상권은 분석대상에서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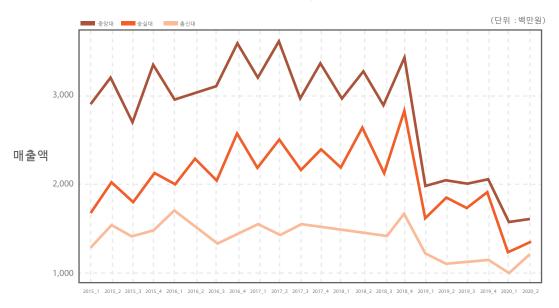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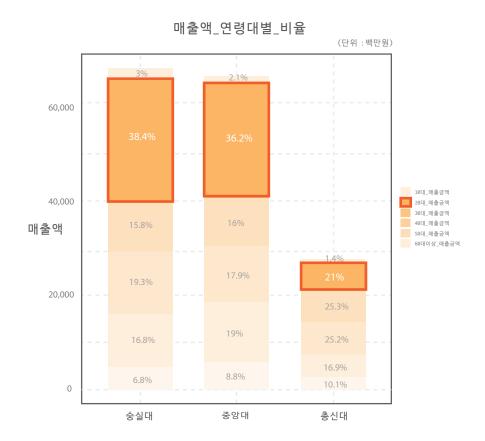
데이터 변수활용



대학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위한 유동인구, 상주인구, 직장인구, 점포, 집객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였다. 또한 코로나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2020년도 이슈에 대한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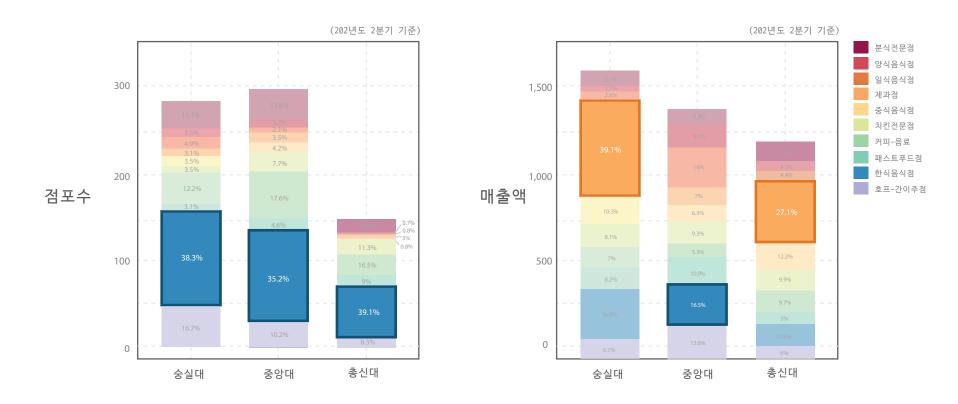
대학상권별_매출액(총_매출액/점포수)_추이





대학상권별 매출액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앙대와 숭실대 변화 추이와 총신대 변화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이점을 발견하였다. 더나아가 총신대는 대학상권이지만 20대 매출비율이 적은 상권임을 볼 수 있었고, 그결과 다른 대학상권과 다른 패턴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.

매출액과 점포수에 대한 서비스업종_비율



점포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한식음식점이 월등하게 높았지만, 분기_매출금액/ 점포수로 나누어 평균매출금액을 보았을 때 제과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. 이 결과를 통해 대학상권 내에서 한식음식점이 '장사가 잘된다'라고 단정지을 수 없었다. EDA결과_3

인구관련 EDA를 넣고 싶은데 ...

모형적합 과정 및 결과

상관분석_cor.test()

```
cor <- map_lg(.x = cor_data, .f = function(x) {
    test <- cor.test(x = x, y = train_data$분기_평균매출금액)
    result <- test$p.value > 0.05
    return(result) })
```

전체유동인구	남성유동인구	여성유동인구	10대유동인구	20대유동인구	30대유동인구	40대유동인구
FALSE	FALSE	FALSE	TRUE	FALSE	FALSE	FALSE
06_11유동인구	11_14유동인구	17_21유동인구	21_24시유동인구	월요일유동인구	화요일유동인구	수요일유동인구
TRUE	FALSE	FALSE	TRUE	FALSE	FALSE	FALSE

ANOVA분석

Oneway.test(분기_평균매출금액~서비스_업종_코드, data, var.equal = F)

One_way analysis of means (not assuming equal variances) data : 분기_평균매출금액 and 서비스_업종_코드 F = 55.405, nun df = 9.00, denom df = 929.23, P-value < 2.2e 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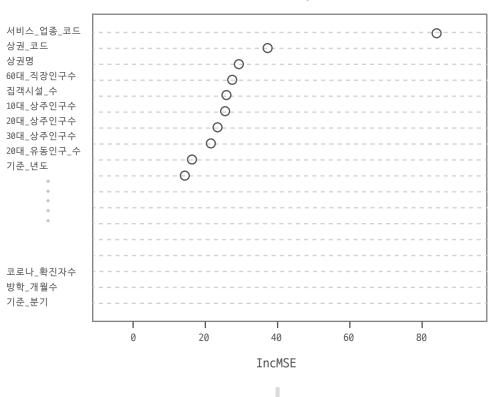
-> 최소 하나의 서비스업종 매출액 평균이 다르다.

Oneway.test(분기_평균매출금액~상권명, data, var.equal = F)

One_way analysis of means (not assuming equal variances) data : 분기_평균매출금액 and 상권명 F = 28.411, nun df = 2.0, denom df = 1656.2, P-value < 7.386e-13

-> 최소 하나의 대학상권 매출액 평균이 다르다.

RandomForest Variable Importa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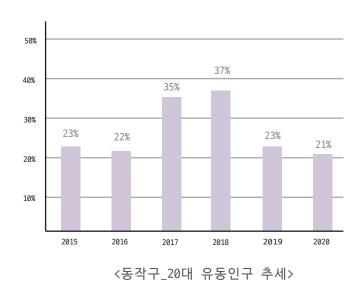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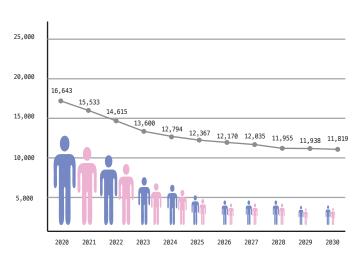
랜덤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변수의 중요도를 찾아보았고, 20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모델결과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.

그렇기에 향후 대학상권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.

결론

1. 유동인구수 감소추세와 장래학력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대학상권은 소비층이 확보된 안전한 상권이 아니다.





<동작구_장래학령인구 예상추이>

2. 상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통과하지 못한 요소들을 새로운 타켓층으로 확대시키는것을 제안



주타켓층 : 대학생(20대)

타켓층 확대